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2015. 4. 28 |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 smj@saesayon.org

고용률이 높아지거나,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귀결되지는 않는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지표에 절대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청년들의 길어지는 취업준비,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로 인한 지속적이지 못한 경제활동 등,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승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과연 '실제' 노동시장을 잘 반영 하고 있을까?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왔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하지만 이 지표들이 현실적인 실업 및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취업자 및 실업자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동시장의 상황을 알아보려면, 바로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성과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1. 노동시장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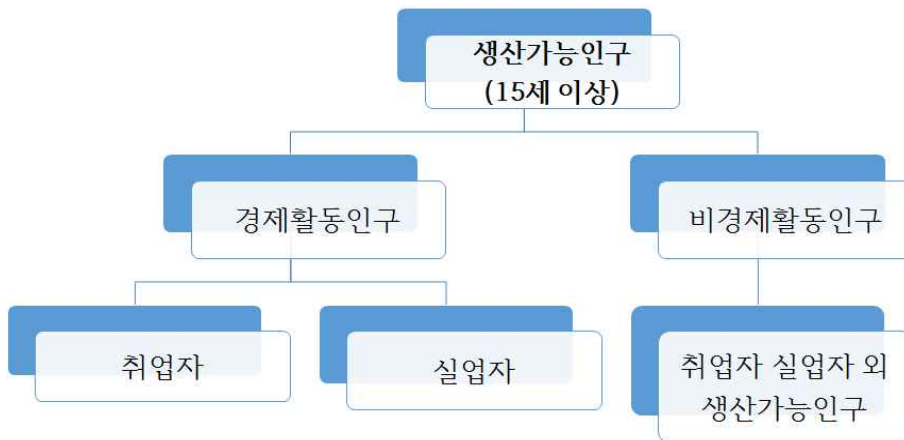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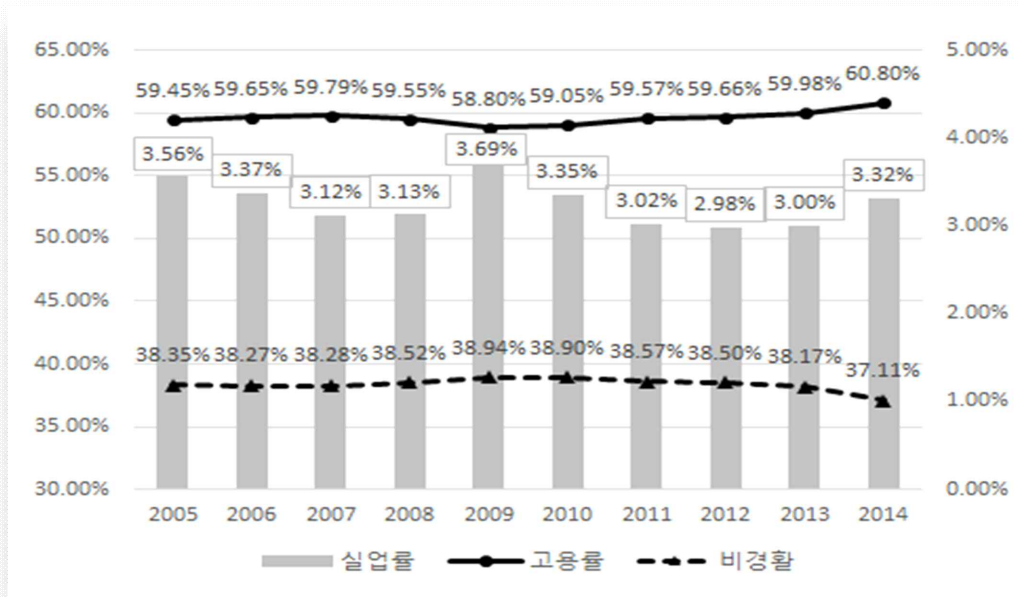




그림 1은 노동시장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15세 이상의 인구는 생산가능인구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어진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구성원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일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분은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통해 판가름할 수 있다. 즉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¹⁾’은 실업자,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그림 2. 2005-2014 실업률,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주 : 왼쪽 축 - 고용률/비경활, 오른쪽 축 - 실업률

그림 2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해 도출한 실업률, 고용률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다. 고용률은 2009년에 58.80%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 60.80%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2012년 2.98%로 가장 낮았고, 2009년 3.69%로 가장 높았다. 2009년에 고용률이 제일 낮고 실업률이 제일 높았지만, 2014년에는 조사기간 중 최고의 고용률을 보임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는 것을

1) 국가통계포털 통계설명자료

(<http://meta.narastat.kr/metasvc/index.do?orgId=101&confmNo=10104&kosisYn=Y>)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취업시즌(상반기 2월~4월, 하반기 9월~10월)” 이 시작되면 각종 매체들은 고용률과 실업률 등을 비교 분석 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시장의 상황을 판단하곤 한다. 여러 해 동안 취업의 문은 계속해서 좁아지기만 했고, ‘3포 세대’, ‘달관 세대’ 등의 단어를 사용해 이러한 어려움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변화 등을 평가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의 <그림 2>와 같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고용률의 변화추이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고용보조지표 (단위 : %, 천명)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잠재 취업가능자	잠재 구직자		
2014.05	4.5	241	9.4	1727	37	1690	10.3
2014.06	4.7	318	9.3	1702	49	1653	10.4
2014.07	4.7	350	9.4	1797	44	1752	10.7
2014.08	4.6	333	9.5	1813	36	1777	10.6
2014.09	4.4	332	9.3	1793	54	1739	10.4
2014.10	4.4	313	9.0	1704	43	1661	10.1
2014.11	4.3	346	9.0	1752	44	1708	10.2
2014.12	4.8	379	9.9	1890	43	1847	11.2
2015.01	5.5	454	10.3	1903	36	1867	11.9
2015.02	6.4	493	10.8	1832	39	1793	12.5
2015.03	5.9	505	10.0	1773	30	1743	1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동향 결과자료 인용)

표 1은 통계청에서 추가적으로 발표한 고용보조지표이다. 이 지표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고용보조지표 1은 취업자 중에서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원하는 ‘시간관련추가취업자’ 를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조지표 2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잠재경제활동인구’ 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조지표 3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하여 잠재실업률을 나타낸 수치이다.²⁾

2014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구직자 규모가 몹시 크다는 것, 그리고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체감적 실업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잠재적경제활동인구와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고용보조지표 2와 3의 결과를 보면, 발표된 실

2)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2014) 고용보조지표 관련 10문 10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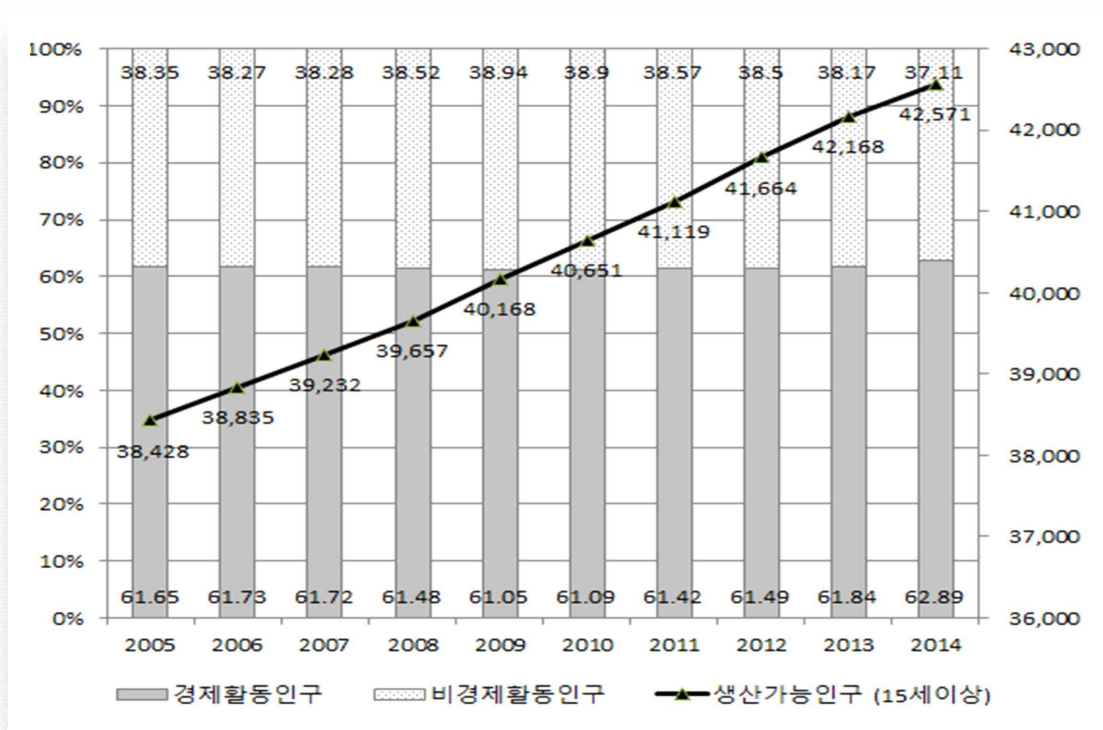


업률의 약 3배 정도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위 식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을 이용하여 실업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수식이다. 즉, 위 표 1에서 나타난 잠재실업률과 실제 실업률 사이의 격차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현실적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주 : 왼쪽 축 - 경활/비경활 (%), 오른쪽 축 - 생산가능인구(천 명)

그림 3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 추세와 각 연도별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계속 줄여 들고 있다.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분석을 통해 청년구직자 뿐 아니라 육아 휴직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회구성원의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자.

표 2. 2005-2014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구성 비율 변화 (단위 : %)

활동상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육아	10.06	10.13	10.03	10.39	10.16	9.11	9.21	9.02	9.03	8.96
가사	36.12	35.82	35.96	35.68	35.30	36.20	36.58	37.19	36.47	36.27
통학	25.77	26.87	27.21	27.53	27.10	27.33	26.47	26.27	26.88	26.49
연로	10.41	10.20	9.40	9.94	10.41	10.54	10.44	11.28	11.47	12.19
장애	3.26	3.25	3.03	2.88	3.00	2.83	2.62	2.41	2.51	2.73
그 외	14.38	13.78	14.37	13.58	14.03	13.97	14.68	13.83	13.64	13.3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표 2는 연도별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사와 통학으로서 두 항목을 더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중 6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에서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나타낸 것이다. ‘그 외’ 항목에는 취업준비, 진학준비, 그리고 쉬었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10년간 예외 없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루어볼 때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가사를, 청년층의 그것으로는 통학을 꼽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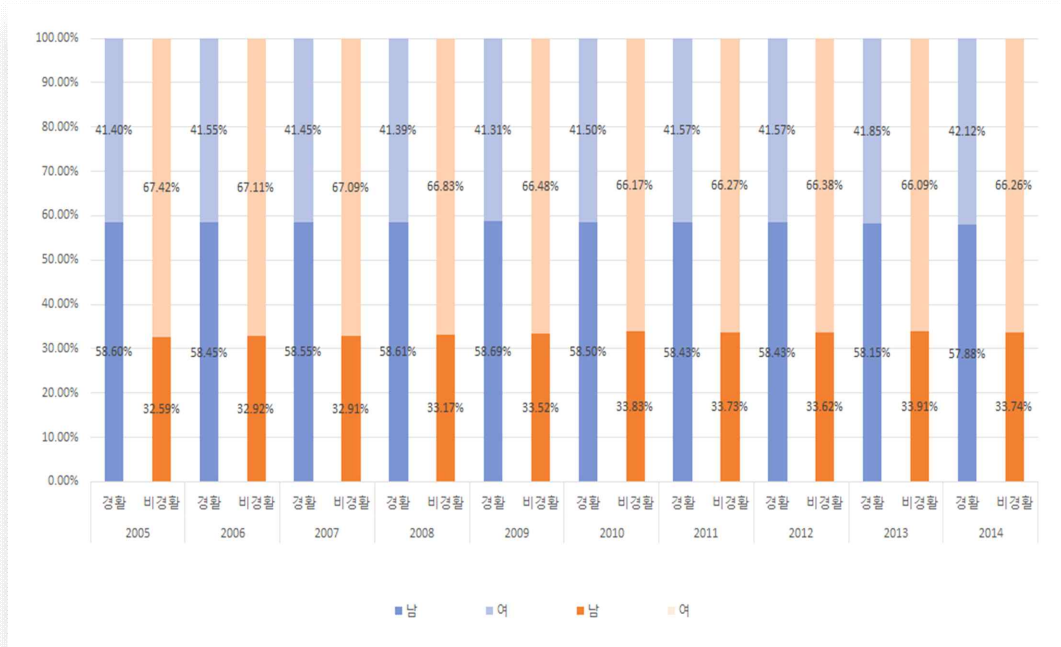
다음 그림 4와 그림 5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비와 성별 활동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조사기간을 통틀어 비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인구 중 여성이 남성의 약 2배 수준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에서는 여성이 40%대, 남성이 6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앞서 표 2의 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가사 항목이 매년 35% 이상 수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큰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래의 그래프들을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보겠다.

아래 그래프에서 활동상태 별 비율이 연도별 차이보다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그 이유가 가사 및 육아를 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연관지어 볼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통학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그 외 항목이다. 이를 통해 남성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데에는 취업준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학에는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다니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 항목에는 취업준비 및 진학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남성의 경우 취업준비를 하는 시기(20대)와 취업후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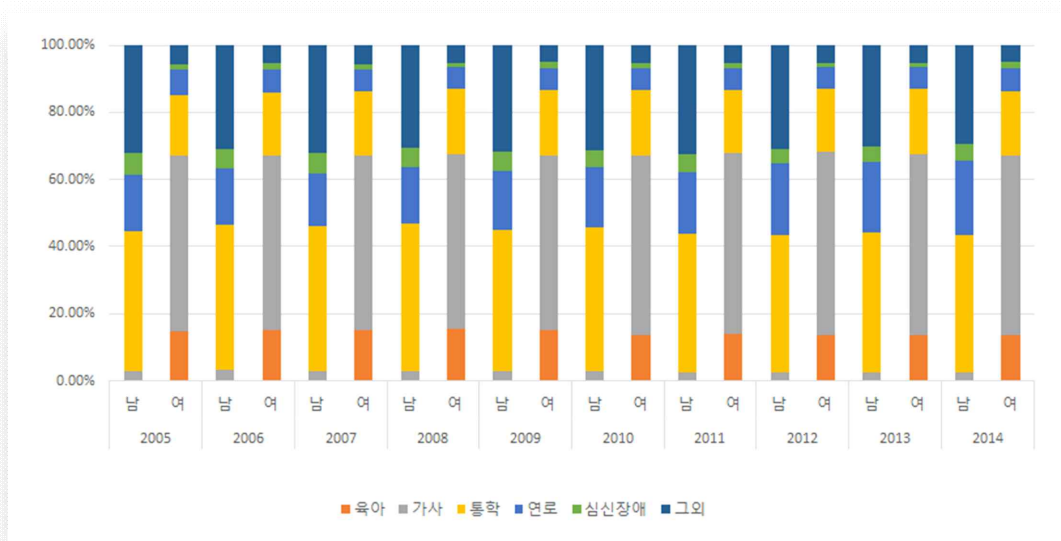
기(30대)에 비율이 확연히 다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연령대별 비율도 다르다.

그림 4. 2005-2014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비율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그림 5.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활동상태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표 3.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연령대 비율 (단위 : %)

연도	성별	15세 -19세	20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59세	60세 이상	계	
경제 활동 인구	2005	남	0.99	15.51	29.12	27.86	16.42	10.10	100
		여	1.54	23.72	22.54	26.41	14.84	10.95	100
	2008	남	0.82	14.02	27.58	27.88	18.71	10.99	100
		여	1.32	21.29	21.74	26.75	17.29	11.61	100
	2011	남	0.78	12.89	25.73	27.16	21.21	12.24	100
		여	1.51	19.42	20.23	26.10	20.11	12.63	100
	2014	남	0.84	12.82	23.76	26.06	22.88	13.64	100
		여	1.47	18.05	19.84	24.67	21.86	14.12	100
비경 제 활 동 인 구	2005	남	29.99	21.69	5.46	5.72	8.22	28.92	100
		여	13.25	13.33	19.48	14.77	12.28	26.89	100
	2008	남	31.04	21.85	5.31	4.89	7.70	29.22	100
		여	13.91	12.86	18.04	14.03	12.86	28.30	100
	2011	남	30.50	19.84	5.63	4.90	8.28	30.84	100
		여	13.74	11.61	16.97	13.54	13.93	30.21	100
	2014	남	28.08	21.13	4.55	4.36	7.70	34.18	100
		여	13.24	11.18	14.86	13.39	14.14	33.19	10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기준)

표 3은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성비를 나타낸 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의 경우 20대보다 30대가 1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2005년 외에는 30대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다. 특이한 점은 50대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10년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에 대한 이유로는 인구의 고령화, 가구의 빈곤 등 다양한 원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경우 같은 기간 15%이상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 은퇴(50대 중반 및 60세 이상)를 하기 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여성은 20대보다 30대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비율이 더 높다. 또한 이 시기를 지나 40대 ~ 50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에 속해있던 여성들이 가사 및 육아를 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평균적으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인 40대 이후에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여성이 많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분석들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성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용률이 높아지거나,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노동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반드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지표에 절대적으로 기대기보다는 청년들의 길어지는 취업준비, 여성들의 가사와 육아로 인한 지속적이지 못한 경제활동 등,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승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지표와는 차이가 큰 ‘체감 실업률’ 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체감실업률이 실제로 발표되는 실업률, 고용률보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현실을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해준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고용률과 실업률에 드러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4월 28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